

회사명칭 변경과 함께 종합포장회사로 도약 26년간 포장경험으로 운영의 묘미 발휘

이정일 / (주)동서 포장사업부 상무



▲ 이정일 (주)동서 포장사업부 상무

국내포장산업은 기술과 경험을 쌓아온 많은 포장전문인이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포장이 어려움을 받던 시절, 포장업계에 입문하여 그간 줄곧 포장업계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온 포장인들은 아직도 국내 포장의 수준이 떨어져 있음을 안타까워 하고있다.

지관 및 연포장 가공 메이커인 유동기업 주

식회사는 지난 1975년 아폴로 보온병(주)를 시작으로 그간 지관, 캡, 연포장, 블로운 필름을 생산해 왔으며 최근 계열사 이미지 통일을 위해 (주)동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주)동서 포장사업부 상무로 포장부문의 실질적 경영을 맡고 있는 이정일 상무는 처음 설립 당시 뒤떨어졌던 동서의 품질을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주력해온 장본인이다.

“포장업계에 입문한지 벌써 26년이 지났군요. 70년 4월 포장기술협회에 입사하여 포장과 인연을 맺고 81년에는 개인회사에서 잠시 근무하기도 했으며 82년 동양제과 제품기획부 차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과 포장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85년 유동기업이 포장사업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부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라고 밝히는 이상무는 유동에서만도 11년이 넘게 몸담아 왔다.

“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이 인력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장제조업체는 종업원 이동이 잦아 제품생산에까지 차질이 발생할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매년 최신의 연구설비를 보강하고 실력있는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 발전의 성패는 연구개발에 달려있다고 자신하는 그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운영방안을 펼칠 것……

수 있고 어려운 작업환경을 작업자들이 꺼려
하여 복리후생에도 많은 지원을 해야합니다.

동서의 경우는 처음 설립당시 경험이 많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제품개발이나 품질관리
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7년째인 현재는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 품질에 있어 앞서 있다
고 자부합니다”라고 자신했다.

유동은 85년 포장사업부를 부평으로 옮기
고 88년 플라스틱캡 생산을 시작했으며 89년
반월로 이전하면서 연포장과 블로운필름을 생
산, 본격적인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20여년간 포장업계에 몸담으며 그가 늘 꿈
꾸어 온 것은 포장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
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는 최근까지도 포장이
원제품과 차별되어 부재료로 취급되고, 아직
도 싸개라는 개념이 짙어 포장분야에 대한 연
구개발비나 투자비가 제품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디자인, 제품, 포장 3가지가 조화있
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부터 저희 유동이 (주)동서로 명
칭을 개칭했습니다. 이것은 계열사가 같은
이미지를 갖자는 CIP개념과 이것을 계기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화에 발맞춰가려

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서식품의 모회사이기도 한 동서는 지금까
지 동서식품 65%, 기타 35%의 제품을 생산
하고 있으나 점차 타 회사제품을 늘려갈 것이
며 매출도 지난해 192억에서 올해는 230억으
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라고 피력하는 모습에
서 종합포장회사로 발돋움하는 동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연구소장직을 겸하고 있는 이 상무는 제품
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매년 최신의 연구설비를
보강하고 실력있는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
다. 기업 발전의 성패는 연구개발에 달려있다
고 자신하는 그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운영방
안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1944년생으로 성균관대 화학과를 졸업한
이정일 상무는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
각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앞으로도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포장분야를 개척하겠
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금도 실력있는 후배들
이 대거 양성되고 있으나 이들을 뒷받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

이선하 기자